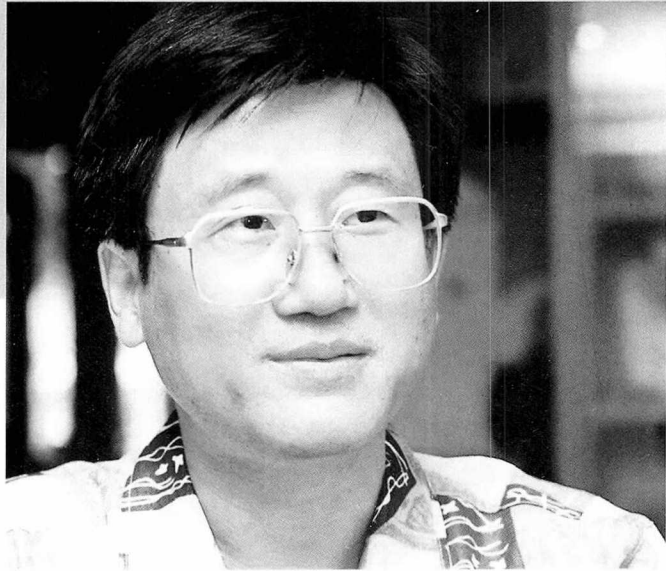


빼어난 조형예술에 숨어 있는 백제인의 숨결

《백제금동대향로》 펴낸 서정록씨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백제대향로'가 몸집을 드러내자 발굴팀은 "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국보 중의 국보였다. 빼어난 조형미와 상징체제로 볼 때 기존의 어떤 유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학계는 향로가 백제인 고유의 생사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 하나로도 수백편의 논문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논문이 나왔다는 소식은 없다. 능산리 유적이 아직 발굴중이어서 학계 움직임이 조심스럽다는 게 이유다. 중국에서는 북위 왕조가 만들어 백제로 보낸 것이라는 학설까지 나오는데 말이다. 이런 와중에 한 재야학자가 백제대향로에 관한 두툼한 연구서를 출판해서 화제다. 《백제금동대향로》(학고재)를 펴낸 서정록씨(47)가 그 주인공이다.

백제대향로에 대한 학계의 통설 뒤집어

이 책은 '향로'의 배경을 둘러싸고 불교관련설, 중국영향설, 신선사상설 등 기존 학계의 가설을 뒤엎고, '북방 샤머니즘설'을 주장하고 있어 파격적이다. 이 주장은 꼼꼼한 과학적 분석과 1백 페이지가 넘는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더욱 신빙성 있게 다가온다.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노신(爐身)의 연꽃문양만으로 이 향로를 절에서 사용한 '공양구'로, '연화화생'의 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쉽게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연꽃은 '광휘'를 나타낸다고 해서 불교 전래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모셔온 '태양꽃'이었죠."

이 책은 백제대향로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이면서 동시에 한국 고대 문화사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다. 최초의 본격 북방연구서기도 하다. 미술사와 고고학사는 물론 동서교류사, 음악사까지 두루 통찰해야 하

8년 전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백제왕실용으로 보이는 '향로'가 출토됐다. 봉황과 악사, 산악도와 수렵도가 아로새겨진 '국보'였다. 학자들은 '백제의 부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뒷받침해줄 학설이 없었다. 향로의 역사적 가치를 꿰뚫어본 이는 놀랍게도 초야에 묻힌 한 미술사학자였다. 그가 오랜 연구 끝에 펴낸 이 책은 1천년의 침묵을 문자로 옮긴 드라마틱한 기록이다.

는 방대한 작업이다.

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지난한 작업에 매달려온 서씨는 원래 서울대 철학과에서 석사까지 수료한 철학도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관심은 역사로 쏠렸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런데 역사관련 책이나 논문을 찾아 읽으며 그는 점점 역사학계에 불만이 쌓여갔다. 철학도로서 잡다한 장르를 소화해 온 그에겐 지루한 실증주의 논문과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역사를 과장해 온 논문들을 받아들이기가 곱고려웠다. 심각한 것은 그 안에 자국사에 대한 열등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열등주의에 대한 반항심으로 역사연구에 매달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것을 정확하게 보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 없이 서구추수주의에 휘둘리다보니 결국 남의 말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 것을 찾는답시고 그걸 다른 모양으로 포장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겼죠."

서씨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을 마치고 1989년부터 시인 김지하, 장일순 등과 함께 한살림 운동에도 가담했는데, 여기서 그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 문제를 좀더 심각히 고민하게 됐다. 고구려 벽화라면 우리 고유의 '창조성의 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한참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거듭하던 중 백제대향로가 서씨 앞에 나타났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된 향로를 꼼꼼히 돌아보는데 박물관 측 자료에 나온 신선사상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향로에 고대 동북아인들의 정신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확신이 전류처럼 전해져왔어요. 게다가 고구려 고분 벽화와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친연관계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작업은 향로가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검증에서 시작되고 있다. 가능한 한 정확한 연관관계를 따졌으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 발상의 동일성 여부"를 착실하게 짚어나갔다. '백제신'



학고재/A5변형/488면/25,000원

이라는 증거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과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산수봉황문전을 통해 쉽사리 드러났다. 백제대향로가 성왕 때 사비천도를 준비하면서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신궁에 봉안돼 백제왕실의 건방지신과 조상신들을 모시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백제인은 코스모폴리타이었다

중요한 것은 향로의 쓰임새보다는, 거기에 아로새겨진 갖가지 상징물들을 해석하는 데 있다. 우선 향로 뚜껑의 봉황, 그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5악사, 춤을 추는 5기러기, 5개씩 이중으로 만들어진 향공은 무엇을 뜻할까. 서씨는 이처럼 '5'가 되풀이되는 것을 고대 동북아의 5부 정치체제와 연결시켰다. 5부체제는 북방 유목국가들의 '부체제'와 고대 동북아의 '5방위 관념'이 결합돼 탄생한 것으로 백제대향로가 탁월한 점은 이런 5부체제를 봉황을 중심으로 한 5악사와 5기러기가 산의 정상에서 천신을 맞아 오신(娛神)하는 형태로 표현한 데 있다. 서씨는 이를 "정치적 이상을 '음악의 화(和)'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 뒀던 고대 동북아인들의 정신세계를 잘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악사들이 들고 있는 악기들은 당시 백제인들이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쿠차지역과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한 코스모폴리타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완함' '배소' '적'은 서역악기들이고, '거문고'는 고구려, '북'은 남방계의 것이다. 왜 가까운 중국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서역악기를 수입하게 됐을까?

"중국음악은 2, 4박자 음률이고 기본적으로 노동요입니다. 반면 우리의 3박자 음률은 흥겹게 춤추는 데 어울리는 가락이죠. 서역음악은 밝고 축복의 분위기가 감돌아 우리에게 더욱 풍부한 영감과 색채로 다

가울 수 있었죠."

백제대향로를 둘러싼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는 중국 북위시대 '박산향로'와의 영향관계다. 이에 대해 서씨는 북위가 서역의 삼산형 산악도 양식을 단순히 채택한 것에 불과한 반면, 백제대향로의 산악-수렵도는 우주의 동물신령들을 지배하는 사산조 페르시아 왕들의 '수렵왕' 개념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한다. 서씨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료를 제시한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왕이 사냥 나갔을 때 수렵동물이 꼭 사슴이나 신록(고라니)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고구려왕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슴은 고대 동북아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었다. 페르시아 타키부스탄 동굴에 그려진 사산왕들의 수렵도에도 사슴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사슴은 왕이 현실계의 왕인 동시에 우주의 신령들을 지배하는 '수렵왕'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서씨는 백제대향로에 그려진 '말탄 수렵왕' 역시 백제왕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백제대향로의 연꽃이 백제인들의 내세관을 표현했다고 실증하는 대목은 이 연구서의 '백미'다. 고대인들은 목조건축물 천정에 하늘연못(천정, 天井)을 만들어 연꽃과 물고기, 새 같은 동물을 장식했다. 이는 고대인이 상상했던 천상세계고, 죽어서 이곳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백제대향로의 '연화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우리 고대문화는 불교와 도교의 일방적인 전래과정으로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내세관까지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신앙체계는 아니었죠. 반대로 고대 동북아 문화권에서 토착적으로 형성된 고유 신앙체계에 따라 숨쉬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고대사 연구의 문제는 사료의 빈곤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서씨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시켜 내년쯤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일단 있는 것이라도 정확하게 보고 가려내는 작업만으로도 주변의 사료들이 넘쳐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강성민 기자

사료의 빈틈 메운 상상력

서정록씨와 마주앉아 이야기할 때 그는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마치 책이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듯이. 개인적인 일화를 끌어내려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뭘 별볼일 있나요. 그 날이 그 날이죠"하며 말끝을 흐린다. 그가 책 내용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언론사의 반응 때문이리라. 《조선일보》에 전문가의 호의적인 서평이 실렸지만, 몇몇 일간지에서 그의 학설에 반신반의를 표했던 것이다. 특히 서역 영향관계를 밝힌 부분이 의혹의 눈길을 받았다. '상상력'에 의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 책은 역사적 사실들을 최대한 원형복구한 다음, 나머지 빈틈에 조심스럽게 상상과 추리를 끼워 넣었다. 후자가 앞서지 않으니 상상보다는 해석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빈틈이 종종 대화를 여는 '창'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